

조선 왕비 43명의 파란만장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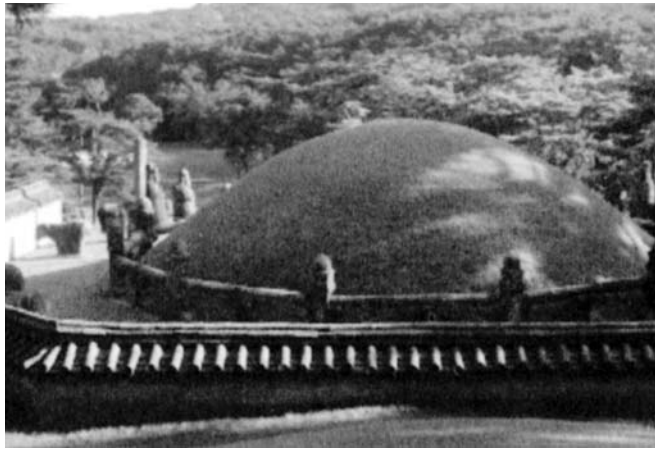
왕비로 산다는 것

신병주 지음



“단종이 노산군이 되면서 정순왕후 후 역시 부인으로 강등되었고, 동대문 밖에서 거처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이어갔다. 현재 종로구 창신동에는 ‘자지동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 밑에 샘물의 흔적이 보인다. ‘자지동전’은 ‘자주빛 풀이 넘치는 샘물’이란 뜻으로, 흰 옷감을 이곳에 넣으면 자주빛으로 염색이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정순왕후가 생계를 위해 이곳에서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중략) 세종 때 출생한 그녀는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등 무려 8명의 왕과 함께 한세상을 보낸 셈이다. 그녀의 무덤은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 집안 중종의 산이 있는 현재의 남양주시 진건읍에 대군부인의 묘로 조성되었다.”(본문 중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키워드는 많다. 인물일 수 있고, 사회일 수도 있으며, 문화일 수도 있다. 인물 가운데서도 권력자, 신하, 백성 등 다양한 계층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재상, 또는 이슈가 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주에 있는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인 영릉은 한 봉우리에 두 방울 갖춘 합장릉이다.



성종 때인 1483년 대왕대비 정희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확장한 창경궁.

그러나 화려하기보다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왕비의 이야기가 역사를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 있다. 왕비는 권력과 부가 보장된 지위라기보다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입장에 처한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왕비를 키워드로 조선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조선시대 최고 전문가’인 신병주 건국대 교수가 펴낸 ‘왕비로 산다는 것’은 가문과 왕실 사이에서 갈등을 감당해야 했던 왕비의 운명에 초점을 맞췄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50명의 인물 중 공식적인 왕비는 43명이다. 나머지 7명은 연산군과 광해군을 따라 폐비된 폐비신씨와 폐비유씨,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로 추승되었다가 그가 폐위되면서

13년 만에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온 공성왕후 등이 있다. 또한 사약을 받은 조선의 첫 왕비이자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소헌세자 즉위로 왕비가 되지 못한 소헌세자빈 강씨 등이다.

이는 왕비들이 가문과 왕실의 권력 사이에서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신변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힘이 됐던 신덕왕후를 비롯해 태종 이방원을 왕위에 오르게 만든 원경왕후 이야기가 나온다.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의 아버지 심온은 신권의 중심에 섰지만, 왕권 강화에 역점을 뒀던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단종을 몰아내고 집권한 세조 뒤에는 여결형 왕비 정희왕후가 있었다.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날, 그에게 갑옷을 입혀준 대장 여성이었다. 훗날 성종을

대신해 조선 최초 수렴정정을 하기도 했다. 인수대비로 알려진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여성이었다. ‘내훈’이라는 최초의 한글 여성 교육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폐비 신씨는 연산군의 왕비라는 이유로 폐위되었다. 신씨 조카로 중종의 왕비인 단경왕후는 부친 신수근이 연산군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폐위의 운명을 맞는다. 중종의 다음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을 대신해 수렴정정을 한다. 그리고 20년간 동생 윤원형, 정난정 등과 함께 외척 정치를 이어간다.

저자는 공권을 찾아보면 외견상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왕비들의 파란만장한 역사 또한 드러워져 있다고 강조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9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워터 댄서=세계가 주목하는 저널리스트, 전미도서상 수상작가 타네히시 코츠의 소설. 19세기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 주와 북부의 필라델피아 주를 배경으로 인종, 빈부, 성별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줄 세워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속박의 사슬을 부수고 나왔는지 다룬다. 출간 즉시 아마존, 뉴욕타임스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를 석권, ‘타임’을 비롯한 13개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다산책방·1만7000원〉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황인숙 시인의 산문집.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남산 마을, 해방촌에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시를 쓰며 살아가는 시인이 경험한 일들과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을 담았다. 서울의 낯은 정서를 머금고 있는 곳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나들이하는 한 시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달·1만4300원〉

▲새롭게 만나는 한국 신화=‘익숙하지만 낯선 한국 신화의 주인공 이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 대왕벌과 소별왕, 삼승할망과 저승할망, 성주신, 조왕신, 자청비, 바리공주, 강림 등 익숙하지만 낯선 한국 신화의 주인공을 새롭게 조망한다.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신



화 속 상징에 대한 탁월한 해설을 곁들이며 한국 신화 속 이야기를 풀어낸다. (원더박스·1만5800원)

▲잔혹한 진화론=과학 이론으로서 진화론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과 달리, 진화는 지금도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수술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식당에도 우리의 몸은 생존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은 진화가 무엇인지 알기 쉬운 말과 예시로 설명하면서 진화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까치·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바람숲 도시관=‘바람숲그림책도시관’을 운영하는 최지혜 작가가 김성은, 김유진 작가와 함께 쓴 책이다. 이른 아침, 강 건너 숲에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은 숲속을 휘휘 돌며 온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숲을 간질이며 소곤소곤, 도토리를 어르며 속삭이는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책으로 이어진다. 안나산 그림책 집어 들고 읽기 시작하자, 동물 친구들도 하나둘 책에 관심을 보인다.

〈책읽는곰·1만3000원〉

▲공알=김영미 시인은 평소 우리 주변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감성으로 풀어낸다. 행복은 무엇인지, 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시로 이야

기한다. 이번 책에서도 풍 한 알, 무당벌레, 할미미를 통해 각각의 존재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전하며,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한다. (도토리숲·1만2000원)

▲초록 바람= 아이도 어른도 다들 쫓기듯 살아가는 요즘, 잠시 멈추어 자연을 만나는 ‘삼’의 시간을 주는 편안한 휴식 같은 그림책이다. 부드러운 바람, 눈부신 햇살, 반짝이는 나뭇잎. 길바닥에 일지 행렬을 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개미와 이름 모를 벌레들……. 바쁜 걸음을 멈추고 주변에 눈을 돌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자연을 만나고 빠져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장·1만3000원)

“자살할 이유 30가지쯤 있지만, 난 행복하다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영 지음



그는 자주 논쟁의 중심에 섰다. 불특정 다수의 비난의 한 가운데 있었다. ‘젊은 시절 세련의 결혼과 세련의 이혼으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예수를 앞둔 늙은 여성 작가’인 그녀는 다섯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서를 오가고 있었고, 인터넷을 열면 입에 담지 못할 악플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고 대출은 많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날마다 그 한도를 향해 떨어지고 책은 예전보다 팔리지 않았다. 침이 나오지 않아 외출할 때면 1.8ℓ 짜리 생수 두 병을 지니고 다녀야 했고, 이유 없이 검은 피를 쏟고 목이 통통 붓는 등 건강도 완전히 망가졌

다. 소설가공지영이 4년만에 출간한 에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지영의 섬진강 결 15평 남짓의 소박한 집에서 지내며’ 날마다 점점 행복해지기로’ 하고 조금씩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책이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된 사람이었다”라는 제목을 단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공식

육아’가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한 그는 돈을 탈탈 털어 섬진강변 평사리에 작업실을 마련했고, 이 곳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작은 평안을 얻는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한 번 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상처 입히고 싶어했지만” 섬진강의 운송, 사시사철 피는 꽃과 나무, 커피와 와인,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며 평안을 유지한다.

공지영은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늘 죽음을 생각하던 날들,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던 날, 친한 친구와 동료들 잃던 날, 열심히 살려 발버둥칠수록 쏟아지는 악플에 상처 받았던 날들. 책은 그녀의 섬진강 집에 찾아와 “당신

이 겪은 온갖 불행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 묻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0대 때부터 동생을 돌보며 공부해 대기업에 들어간 후 해고 노동자를 도우려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은 뒤, 평생 돈을 벌지 않고 자살하게 기대다오 이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부모에게 착한 딸로 남고 싶어하는 J,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육아로 경력단절 됐고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어 마음이 지옥인 S에게 전하는 글이지만 결국은 작가 자신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도시를 떠나 섬진강변으로 완전히 이주한 작가는 모두에게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행복을 만끽하라”고 말한다. 인생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고통 속에 써 내려간 글들이기에 그녀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온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